

台耳龍湫 傳説

— 編輯者 —

정선도(長山島)에서 서남쪽으로 보면 상태도(上台島)가 바라보이는 곳에 다수리(多水里)와 성주골 사이에 조그마한 무인도가 있다.

그 무인도 안에는 주변이 2백 여보에 이르는 태이용추가 있다.

이 태이용추가 있는 섬을 사람들은 노파도(老婆島), 말 그대로 할미 섬이라고 하는데 섬 전체 면적이 1정보(3천평) 내외로 매우 협소하다.

그러나 섬의 해안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 해초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노파도에 얽힌 전설 또한 유명하다.

옛날 장산도에는 옥녀라는 열 일곱 살의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모친과 함께 이 무인도에서 따오는 해초로 가게를 꾸려 나갔다.

어느 날 그녀는 모친과 함께 해초를 따라 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 틈에 끼여 작은 거룻배를 타고 장산도를 향했다.

장산도를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 속이 내리비칠 듯이 맑은 하늘은 배가 무인도에 이르자 어디서 피어오르는지 모를 구름이 꾸역꾸역 섬 주위를 몰려들었다.

“날씨도 요변스럽긴...”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저나 여기 이무기가 있다더니 그 요물이 도섭을 하느라고 날씨가 이런 거 아니오. 혹시?”

“그냥 갑시다. 이러다 날씨가 돌변하는 날에는 집도 절도 없는 이곳에서 굶어 죽기 꼭 참이오.”

“굶어 죽거나 하면... 그 놈의 이무기가 해꼬지라도 하는 날엔...”

“제수 없는 소리 그만 하시오”

섬 주위를 싸고 도는 구름의 기이한 힘에 해초를 따러 왔던 장산도 사람들은 설왕설래를 거듭하면서도 해초를 뜯기 시작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날씨가 누그러들 것이라는 이들의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구름은 검은 빛을 띠고 하늘을 몇 겹씩 가리고 그 틈바구니로 뇌성벽력과 함께 억수 같은 비를 퍼부었다.

잠시 후면 그치리라고 생각한 비는 더욱 기세를 더해 가고, 해수면에는 어느덧 물안개가 가득 퍼져 눈앞에 잡힐 듯 보이던 장산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내가 뭐랬소. 진작에 가자니까.”

“이제 와서 가리산지리산 해봐야 무슨 소용이오, 어서 가거나 합시다.”

배는 무인도를 출발해 장산도를 향하고 있었다.

배가 섬과 섬 중앙을 지나고 있을 때 였다.

무인도 머리 위로 이무기가 비를 타고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퍼붓는 빗속에서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한 옥녀는 놀라움과 기이함에 소리를 쳤다.

“저길 봐요. 이무기가 승천하고 있어요.”

“어디?”

그 황망한 속에서도 사람들은 옥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과연 이무기가 구름 속으로 긴 몸뚱이의 반을 들이밀고 마지막 사력을 다 하고 있었다.

순시가 지난 후 어찌된 일인지 이무기는 힘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버렸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불길한 징조에 마음을 조이면서 뱃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장산도가 눈앞까지 가깝게 다가왔을 무렵이었다.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노를 더 힘있게 지어 보시오.”

배 안의 사람들이 당황하여 조급한 마음을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 무심코 뱃전

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지러지기 시작했다.

“이무기… 이무기가 배를…를”

이미 이무기는 거룻배를 휘감고 금방이라도 부숴 버릴 기세로 혀를 널름거리고 있었다.

“천년을 두고 기다린 내 승천이 방정맞고 부정한 계집이 소리를 지른 탓으로 망치고 말았으니 그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배 안의 사람들은 불을 뿜듯 노기를 사르고 있는 이무기를 제대로 올려다 보지도 못하고 두 손을 모아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할뿐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미물들이 눈이 멀어 영물을 몰라보고 그랬으니 제발 목숨만 부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애걸을 하며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 본 이무기는 화가 한풀 꺾인 기세로 옥녀를 무인도에 내려놓고 가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 주겠다고 하였다.

배 안의 있던 사람들의 의견은 재론의 여지도 없이 옥녀를 무인도에 내려놓고 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안돼요. 차라리 딸년 대신 내가 가겠소.”

“아쭙니 줄 초상나는 꼴을 불러고 걱정하셨소.”

“옥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목숨이 죽은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오.”

“맞소.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섬에 내려놓고 가라는 것인데…”

“아이고 이 무심한 사람들아 열 일곱 해 고생만 시킨 내 딸년을 고적한 이곳에 띠어 놓고 날더러 어찌 살라는 것인가 나도 같이 있겠네.”

옥녀의 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는 해무 가득한 바다로 감겨들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단념한 옥녀를 무인도에 떨군 채 몸부림치는 옥녀의 어머니를 신고 장산도를 향해 무심히 노를 저어 갔다.

그로 인해, 무인도에 갇히게 된 옥녀는 바다 멀리 보이는 장산도의 그리운 고향 집을 그리며 평생을 홀로 지내다가 외롭게 죽어 갔다.

장산도 사람들은 가엾은 생을 살다 죽어 간 옥녀를 고이 묻어 주었다.

그후로 사람들은 이 섬을 할미 섬이라고 불렀다 한다.